

창조와 혁신으로 시장을 선도한다

맥쿼리증권 상무 이범진 동문

현재 맥쿼리증권에서 근무 중인 이범진 동문(금융 MBA 04학번)은 급격히 변해가는 금융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KAIST 경영대학에 진학했다. 고객과 투자자에게 명쾌한 솔루션을 제시하기 위해선 전문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이범진 동문을 만나 외국계 증권사 생활에 대해 들어보았다.



노련한 솜씨의 기수, 달리는 말에 올라타다

맥쿼리그룹은 호주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아시아에서 성장해서 이제는 유럽과 미국까지 진출하여 명실공히 글로벌 금융 회사로 거듭나고 있다. 특히 2000년 한국시장에 처음 진출한 맥쿼리그룹은 현재 한국시장에서 기업금융자문, 구조화 파이낸스, 인수, 법인주식영업, 주식 파생상품 및 구조화 상품, 펀드 운용 등 다양한 트레이딩 및 헤징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토착화가 쉽지 않은 금융기관의 특성을 감안할 때 맥쿼리그룹은 한국시장에서 성공한 대표적인 외국계 기업으로서 인식되고 있다.

이범진 동문은 2008년, 맥쿼리그룹의 계열회사인 맥쿼리증권에 입사했다. 동원증권 기업금융부와 KAIST 금융공학 MBA 그리고 한국투자증권 투자공학부에서 장외파생상품 설계 및 영업 업무를 담당하던 맥쿼리증권이라는 달리는 말에 올라탔다. 그는 “제 자신이 아직도 성장하는 단계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성숙한 회사보다는 커가는 회사를 선택했다”면서 “성장하는 회사에서 일하는 것이 바람직했고 또 잘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

했다”고 얘기한다. 현재 이범진 동문은 주식연계 구조화 상품 설계 및 세일즈 담당 상무로 재직 중이다. “다양한 상품을 공학적으로 구조화하여 고객과 투자자가 원하는 새로운 상품을 제공하는 게 주 업무”라는 이범진 동문은 스스로를 천상 금융인이라며 현재 하고 있는 일에 만족감을 표시했다.

토종 MBA, 외국계 증권사에서 살아남기

이범진 동문은 서울 태생으로 초등학교부터 대학교, MBA까지 국내에서 마친 토종 금융인이다. 특히 외국인뿐 아니라 교포, 외국계 MBA 출신이 많은 외국계 증권사에서 토종이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남다른 노력이 필요한 법이다. 이범진 동문은 커뮤니케이션 능력과 전문성, 이 두 가지를 갖춘다면 외국계 회사에서도 돋보일 수 있다고 말한다. 한국어와 영어로 불편함 없이 의사소통이 가능해야 하는 한편, 고객과 투자자들이 원하는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외국계 증권사로 진출하고 싶은 후배들에게 “대부분의 외국계 회사는 공채를 실시하지 않고 헤드헌터나 직원 추천을 바탕

으로 직원을 채용하기 때문에 소극적으로 기회를 기다리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지인들에게 자신의 능력을 어필할 것”을 주문했다.

KAIST 경영대학, 세계적으로 인정받을 것

이범진 동문은 맥쿼리증권과 처음 만날 때와 같이 KAIST 경영대학 역시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느낌에 끌렸다고 한다. 최근 파이낸셜 타임즈가 선정한 세계 MBA에서 99위, 경영자과정 29위를 기록한 쾌거에 대해서 그는 “KAIST 경영대학은 계속 전진 중이다. 후배들을 만나보면 많은 것들이 바뀌고, 또 발전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면서 “그런 와중에도 동문들의 애교심은 실로 대단하다”고 강조했다. 이범진 동문 역시 ‘경영대학 멘토링 프로그램’ 등 학교 행사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고 있다. 그는 맥쿼리그룹의 모토인 ‘Forward Thinking’을 언급하면서, “후배들이 획일화된 교육에서 벗어나 다양한 직접 경험을 바탕으로 창조적이고 혁신적인 인재로 거듭났으면 한다”는 바람을 전했다. **이**

박현성 기자 heysteve@business.kaist.ac.kr